

탐라국사의 전개와 이해 방향 모색* **

김동전***

〈차 례〉

1. 머리말
2. 시대구분과 탐라국사 인식
3. 탐라국 정체성의 실체
4. 탐라국의 변천과 동아시아 교류
5. 맺음말

[국문초록]

탐라국은 신화·서사무가에서는 영평 8년(65) 건국, 고고자료로는 2~3세기, 문헌상으로는 늦어도 5세기에 형성했다. 탐라국은 1105년(숙종 10)에 해체되어 탐라군이 설치되었다. 탐라국 시대구분은 탐라 초기(기원전후~200년), 탐라 전기(201~660년), 탐라 후기(661~900년), 탐라 말기(901~1105년), 탐라 재편기(1106~1404년)로 구분했다.

탐라국 정체성을 고고자료, 문헌자료, 신화·무가자료로 파악했다. 첫째, 고고자료로 본 정체성이다. 제주 출토 고고학적 유물을 종합해 볼 때 한민족 형성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로 이동해 온 3갈래 계통, 곧 예맥 등 고구려계통, 마한 등 백제계통, 변한·진한 등 신라계통의 종족들이 탐라로 이동해 탐라 왕국의 중심세력으로 정착했다. 나아가 고고학적으로는 고려 건국을 전후해 탐라에서 생산되는 토기도 소멸되어 고려기와, 고려도기, 고려청자 등이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등 고려 건국을 전후해 한반도 문화로 편입되었다.

둘째, 문헌상으로 본 탐라국의 정체성이다. 탐라는 삼한, 고구려·백제·신라, 가야 계통의 종족들이 시대를 달리하며 이동해 와서 본래 고·양·부을나 정치집단으로 대표되는 거점취락 단위의 주민들과 통합하면서 국가를 형성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해상문물 교류를 유지하면서 탐라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그리고 백제 멸망을 계기로 주변 당나라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 교류관계를 형성하면서 선진적 문물 유입을 통해 탐라국을 국제적으로 발전시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은 「독립 왕국, 탐라의 실체를 찾아서」(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새롭게 쓴 탐라사』, 한그루, 2024, 12)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켰다. 그후 통일신라와의 교류에 이어 여전히 독립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고려와 관계를 형성했다. 1105년(숙종 10)에 탐라군 설치로 탐라국은 해체되었지만, 중국의 원명교체기, 고려의 정치적 상황에서 탐라의 귀속문제가 고려와 원 사이에 자주 발생했다. 원은 독립국으로서의 탐라국 위상을 가능한 보장하고자 한 반면에 고려는 고려중심으로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 탐라국이 한민족 일원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은 1404년(태종 4) 탐라 성주를 도주관좌도지관, 왕자를 도주관우도지관으로 삼는 등 제주도관의 명칭을 개칭한 시기로 파악했다.

셋째, 신화·무가자료로 본 탐라국 정체성이다. 탐라국은 65년(영평 8년)에 건국되었고, 그후 신화·서사무가는 탐라국 전시기를 통해 탐라국 입춘국과 함께 탐라국의 국태민안을 지키는 정신문화의 중심적 토대를 형성했다. 탐라 중심의 서사무가 등 무교식 의례는 탐라에서 한라산신과 그 아들 광양왕신을 호국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 중엽까지 이어졌고, 결국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탐라 호국신당의 철폐와 한라산신을 국가의례로 전환하여 유교식 의례로 봉행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탐라국의 최고 지배자는 탐라국왕, 탐라국주, 탐라왕이라 칭하였다. 국왕으로 성주, 부왕적 존재로 왕자가 존재해서 탐라국은 이원적 집정체제로 통치했다. 탐라국 도성에는 칠성단을 만들어 제천의식을 시행했다. 고려는 성주왕자, 무산계 수여, 구당사 파견 등 탐라를 회유와 포섭의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1105년에 탐라군을 설치했다. 탐라국의 역사적 유산은 우주 중심의 창조적 세계관, 공존공영의 공동체의식, 해양중심의 개척정신이다.

[주제어] 탐라국, 정체성, 성주, 왕자, 칠성도, 무산계, 구당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일본, 중국

1. 머리말

제주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한반도의 창이다. 또한 태풍의 길목이며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는 동아시아 해양 교통의 허브이다. 제주 섬을 둘러싼 울타리는 바닷길이며 문명의 길이었고, 외부와 공유하는 소통의 길이었다. 기원전후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 변동 속에서 제주에도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는 아니었지만, 독립 국가 혹은 왕국이 등장하였다.

탐라국은 신화·서사무가에서는 중국 후한 영평 8년(65)에 건국된 것으로 전해지며,¹⁾ 고고학 유적으로는 2~3세기,²⁾ 문헌상으로는 늦어도 5세기

1)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섬나라 탐라: 잃어버린 천년을 깨우다』, 2023, 12~17쪽.

2) 강창화, 「고고학으로 살펴본 '耽羅'의 어제와 오늘」, 『濟州考古』 제5호, 2018, 9~15쪽.

에 탐라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³⁾ 그러나 탐라국의 원주민이 종족적으로 어디서 이동해 왔으며, 그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렵다.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삼신인이 땅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그럴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다만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변의 많은 종족들이 이주해 들어오는 데 수월한 곳이였다. 즉,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바닷길을 따라 여러 집단이 들어와 정착했을 수도 있다.

어떻든 남겨진 기록과 유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탐라국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⁴⁾ 궁궐로 추정되는 성주청의 실체, 국왕 무덤의 존재여부, 정치구조, 정신문화, 인구규모, 경제생활 등 탐라국의 실체를 찾는 일은 어둠 속에서 해맬 수밖에 없다. 탐라국의 흔적을 되살리는 데에는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서사가 너무 많아 힘든 여정의 길일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80년대 이후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로 다양한 고고자료가 출토되면서 장막 속에 잠겼던 탐라국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⁵⁾ 따라서 앞으로 제주 주

3) 김영관, 「백제와 탐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고대사탐구』 4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3, 226~229쪽.

4) 탐라사에 대한 최근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창현,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1998;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부산사학회, 2006; 진영일, 『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 보고사, 2008; 전경수, 『탐라 · 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제주발전연구원,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⑥, 2013; 장창은,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 방향」,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耽羅文化』 5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8; 최희준, 「탐라국의 대외교섭과 향로」, 『耽羅文化』 5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8; 장창은, 「사서에 남겨진 고대 탐라국 운위 실체의 재검토」,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정운용, 「삼국시대 탐라 관련 사료」, 『신라사학보』 49, 신라사학회, 2020; 이승호, 「5~8세기 탐라국의 대외교류와 진상 · 조공 품목」, 『동국사학』 70, 동국사학회, 2021; 장창은, 「고대 탐라 명칭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89, 고려사학회, 2022; 김영관, 「백제와 탐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고대사탐구』 4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3; 장창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탐라의 실체 검토」, 『신라사학보』 57, 신라사학회, 2023; 김창현, 『주제로 본 탐라국사』, 탐라문화연구원, 2023.

5) 고고학 관련 연구로는 다음의 논지를 참고할 수 있다. 이청규,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장창화, 「탐라 이전의 사회와 탐라국의 형성」, 『강좌 한국고대사』, 가락국사개발연구원, 2003; 고재원, 「김녕제대기동굴유적의 성격에 대한 시론」, 『제주문화재연구』 2, 제주문화예술회단 문화재연구소, 2004; 장창화, 『제주 고산리 신석기문화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7; 양

변의 해양발굴을 포함한 고고학 발굴을 통한 다양한 자료의 확보는 탐라국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절대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탐라국의 해체는 고려 숙종 10년(1105) 탐라군 설치로 고려의 지방행정 영역으로 편입되면서부터였다. 물론 그 후에도 일정 기간 반독립적 상태로 놓여 있기는 했지만, 1105년 탐라국이 멸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탐라국은 무려 약 1000년에서 900년, 적어도 700여 년은 독립 국가로 존재하였다. 고구려 700여 년, 백제 670여 년, 고려 470여 년, 조선 500여 년보다도 더 오래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고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탐라국이 독립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탐라국은 물론 주변 국가의 강약을 넘어 그 원동력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왕국이었다는 사실과 동아시아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오는 주변 세력과의 공존이라 생각한다. 탐라국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이 특정 국가의 소유였다면 바닷길은 닫혀 있었을 것이고, 소통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탐라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해역은 더욱 그랬을 것이다. 해역의 공유와 공존은 국가 간 힘의 우열을 떠나 조공관계를 통한 상호 배려와 신뢰가 쌓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존·공영이 뿌리내릴 수 있었기에 탐라국은 독립국의 위상을 오래도록 지켜왔다고 본다. 탐라국의 역사적 역할은 한국사는 물론 동아시아사적으로 매우 의미있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탐라국 연구는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국가와 지역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협력해 나갔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탐라국의 역명은 청동기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진입하면서 비롯되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이행

나래, 「제주도 패총 출토 어패류에 관한 소고」, 『제주고고』 1, 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전영원, 「삼도동유적 출토 식물유체분석」, 『제주삼도동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이청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강창화, 「고고학으로 살펴본 '耽羅'의 어제와 오늘」, 『濟州考古』 제5호, 2018; 김경주,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57, 2018; 박경민, 「탐라의 형성과 고고자료의 상관관계 연구」, 『호남고고학보』 58, 2018; 박재현, 「토기로 본 '제주지역 탐라후기의 대외관계」, 『호남고고학보』 69, 2021.

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흔히 철이 세상을 바꾸는 시기였다. 철기의 본격적인 사용으로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기반으로 국가 간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었다. 새로운 질서와 사회를 찾으려는 혁신적인 사상가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서양에서는 로마가,⁶⁾ 동양에서는 한나라가 제국을 이루어 각기 패권을 장악하였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시기에 동양에서는 중국의 한(b.c. 202~a.d. 220년)이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했다. 한(漢)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한 시기로 400여 년간 존속하면서 중화주의를 만들어 냈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보편적 질서를 탄생시켰다. 주변국에게 조공과 책봉이라는 자신들의 질서를 강요하고, 조공하는 국가들에게는 안정과 번영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관계를 화이질서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동아시아 각국의 세계 인식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세력은 한국·일본·베트남 등에까지 이르렀으며, 여기에 작동된 국제질서 시스템은 조공제도로 나타나는 조공-책봉체제였다. 그리고 조공-책봉 관계는 본래 정치·외교적 관계이지만 진공(進貢)과 회사(回賜)라는 경제적 관계와 그에 따른 부수적 관계를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⁷⁾ 조공-책봉체제는 탐라국과 백제·신라·고려, 탐라국과 당, 탐라국과 일본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탐라국에 대한 역사 인식도 중국의 한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만연했던 국제질서의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탐라국이 주변국과 맺은 조공과 책봉관계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국제질서에 기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독립을 상실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국제질서를 통해 국가 간에는 조공과 책봉, 진공과 회사라

6)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가 b.c. 3세기 중엽(b.c. 264년)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고 포에니전쟁(b.c. 264~146)을 통해 b.c. 200년경에 지중해 서부를 장악했다. 이어 b.c. 41년에는 지중해를 통일하여 패권을 장악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지중해는 로마인의 바다가 되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의 위상을 대변해 주었다.

7) 권소연,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 만들기」,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34~35쪽.

는 관계를 통해 상호 공존과 공영의 균형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탐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필요하다.⁸⁾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탐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제안하려고 한다. 우선, 탐라국의 역사를 어떻게 나누어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적 관점, 문헌자료의 관점, 신화와 서사무가 등의 관점에서 탐라국사의 정체성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탐라국의 정치적 발전과 동아시아 시각에서의 탐라국과 주변국의 교류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이해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용한 가운데 제시하는 것임을 밝힌다.

2. 시대구분과 탐라국사 인식

탐라국은 고대국가로 발전한 고구려·백제·신라와 달리 강력한 고대왕권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1천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독립 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독립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서 한반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도 결코 가깝지 않은 해상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연지리적 조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탐라국 자체의 내재적 발전과 외부 문화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주변국과의 적절한 조공관계로 맺어진 대외적 교류가 독립 국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대 구분은 필수적이다. 탐라국 시대 구분의 궁극적 목적은 탐라국 역사 발전의 전체 과정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천여 년의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8) 이러한 시도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장창은,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 방향」,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김영관, 「백제와 탐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고대사탐구』 4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3.

교류, 사상 등이 변화된 양상을 종합적으로 찾아내고 발전단계를 통일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탐라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을 설정했다.

〈탐라국사의 시대구분〉

구분	문헌사학	고고학	한국사
탐라 초기 (기원전후~200년)	•65년 중국 한나라 명제 영평 8년, 탐라 건국(서사무가)	•송국리 주거문화 제주 확산 •마을형성과 계층사회 •삼양동식토기, 화순리식토기	•기원전 : 57년 신라, 37년 고구려, 18년 백제 건국 •42년 가야 건국
탐라 전기 (201~660년)	•285 '주호'로 중국사서에 등장 •476 탐라(국) 백제 조공 •589 수나라 전함 탐라 표도 •645 황룡사9층탑(4층탐라)	•용담동 철제부장묘(수장층 등장) •거점취락 마을 형성 •교역 : 마한, 가야, 백제, 일본, 중국 •곽지리식(외도동식), 종달리식토기	•532 금관가야 멸망 •582 대가야 멸망 •660 백제 멸망
탐라 후기 (661~900년)	•661 왜와 당에 사신 파견 •662 탐라-국주 신라에 내항 •663 탐라 백강전투 참여 •665 태산 봉선 참여 •738, 745 일본과 탐라방포, 탐라 북 교역	•용담동 제사유적, 고내리유적, 괭지패총, 종달리패총, 용천동굴유적 •고내리식토기 대량생산 전도 확산 •신라, 중국, 일본 대외교류 활발	•668 고구려멸망 •676 신라 삼국통일 •900 후백제 건국
탐라 말기 (901~1105년)	•925 탐라 고려에 조공 •1002~1007 탐라, 화산폭발 •1024 무산계 수어 •1034 탐라, 팔관회 참가 상례화 •1105 탐라군 설치	•탐라 해상활동 위축 •원도심유적, 고내리유적, 원당사지 유적 •탐라토기 소멸	•918 고려 건국 •936 후삼국통일
탐라 재편기 (1106~1404년)	•1153 탐라현으로 강등 •1168 양수의 항쟁 •1266 몽골에 입조 •1270 삼별초 제주항쟁 •1273 원, 탐라에 달로화적 배치 •1374 최영 목호토벌 •1404 제주도관 명칭 개칭	•제주항파두리토성 •법화사지, 수정사지, 원당사지	•1392 조선 개국

탐라국 역사의 시대구분은 탐라국의 전체 시기를 탐라 초기(기원전후~200년), 탐라 전기(201~660년), 탐라 후기(661~900년), 탐라 말기(901~1105년), 탐라 재편기(1106~1404년)로 구분했다.

탐라 초기(기원전후~200년)는 고고학적으로 송국리 주거문화가 제주에 확산되고, 철기문화 유입으로 계층사회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삼양동

· 용담동 · 강정동 · 예례동 · 화순리 지역 등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서사무가에서는 중국 한나라 명제 영평 8년인 65년에 탐라가 건국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탐라 전기(201~660년)와 후기는 백제의 멸망을 기준으로 하였다. 탐라 전기는 중국 측에서 탐라국을 ‘주호’로 타칭하던 시기를 거치고 나서 독립적인 왕국으로 자리 잡아나간 시기이다. 탐라국은 고구려 · 백제, 중국 수나라 등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고고학적으로는 보다 발전적인 철기문화의 유입으로 마을이 통합되면서 거점취락으로 확대되어 갔고, 용담동 철제무장묘에서 수장총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괭지리식토기와 종달리식토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라는 탐라가 신라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해 황룡사9층탑을 건립하면서 4층에 탐라를 의미하는 탁라를 배치했다.

탐라 후기(661~900년)와 말기는 후백제가 건국되어 후삼국으로 분열되는 90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탐라 후기는 백제 멸망으로 탐라국의 대외관계가 당 · 왜, 신라로 빠르게 다변화되는 한편, 신라 백강에서 벌어진 전투, 곧 백제 · 왜 연합군과 당 · 신라의 연합군이 벌인 전투에서 탐라는 백제를 도와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당나라 태산에서 행해진 봉선에 외국 사신으로 참여했고, 일본과의 교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고고학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신라와의 활발한 대외교류가 이루어지던 시기로 향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담동 제사유적과 용천동굴 제사유적을 주목할 수 있으며, 고내리식토기가 대량 생산되어 탐라 전역에 확산되었다.

탐라 말기(901~1105년)는 탐라가 통일신라 멸망 후에 고려와 조공관계를 형성하여 성주 · 왕자제를 인정받는 한편, 고려는 탐라지배층들에게 무산계를 수여했고, 탐라구당사를 파견하는 등 회유와 포섭을 통해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점차 모색해 나간 시기이다. 고고학적으로는 고려정부에 의해 탐라의 해상활동이 많이 위축받아 국제적 교역을 통한 문물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탐라생산 토기도 소멸되어 고려기와, 고려도기, 고려청자 등이 유통되는 정도였다.

탐라 재편기(1106~1404년)는 1105년 폐국치군(弊國置郡)으로 탐라국이 해체되어 탐라군이 설치되었고, 그 후 원에 의한 탐라총관부 등이 설치되어 고려와 원의 이중적 간섭과 탐라부흥을 위한 탐라인의 자주적 운동 시기다. 특히, 100여 년 동안 원의 직할통치에 의해 목마장 설치와 목호 파견, 운남·몽골 성씨와 문화, 인구의 유입 등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나아가 ‘탐라’가 ‘제주’로 음호가 변경되기도 했고, 한라산신에 제민(濟民)의 신호(神號)가 더해졌다. 또한, 고려 지방관의 파견 등으로 말미암아 탐라민들이 탐라국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양수, 번석·번수, 차현유 등의 항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1374년 고려의 대대적인 목호 토벌로 제주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에 강하게 편입되어갔다. 결국 제주의 토관세력인 성주 고봉례, 왕자 문충세 등이 성주와 왕자의 칭호가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며 개칭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⁹⁾ 조선 중앙정부는 1404년(태종 4) 성주를 도주관좌도지관(都州官左都知管), 왕자를 도주관우도지관(都州官右都知管)으로 삼음으로써 제주 토관의 명칭을 개칭하게 된다.¹⁰⁾ 그 후 제주는 조선 중앙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에 편입되어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라는 제주3읍체제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져 나갔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탐라국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탐라사는 국가사인 동시에 지역사이기도 하다. 지역의 역사라 하더라도 하나의 지역, 한 국가사의 하위 단위로서의 지역사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어느 특정한 지역의 역사라 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역사는 물론 국가를 뛰어넘어 주변 민족이나 국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 속에 생성·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한민족이 과거에 단혀서 단일민족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적절하지 않듯이 탐라사도 제주 자체의 역사에 국한하지 말고 한국사는 물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9) 김석익, 『탐라기년』, 태종 2년 10월.

10)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4월 21일(신묘). 「辛卯/改濟州土官號, 以東道千戶所爲東道靜海鎮, 西道千戶所爲西道靜海鎮, 都千戶爲都司守, 上千戶爲上司守, 副千戶爲副司守, 道之官爲都州官, 以星主爲都州官左都知管, 王子爲都州官右都知管.」

탐라사는 탐라중심적 시각, 한국 역사와의 종합,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탐라중심적 시각이란 탐라라는 땅에 터를 잡고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영원히 삶을 영위해 나갈 탐라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나친 탐라국 역사나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태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고 발전시켰던 주인은 탐라인이다. 때론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세력에 저항하고, 혹은 수용하고 동화되어 나가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잃지 않고 지켜왔다. 비록 한국 역사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되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탐라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역사적 생명력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탐라국사’에 대한 연구는 탐라를 중심에 놓고, 주변 지역과의 교류 속에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는지, 탐라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제주가 가는 방향에 부합하는 더 큰 가치를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구려사, 백제사, 신라사가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국가사의 서술이듯이 탐라국사도 그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작고 일상적인 것들을 현미경적으로 관찰하는 미시사적 접근이 요망된다. 그 바탕에서 탐라국 사회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전체사의 시각과 탐라국 사회가 지닌 구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구조사의 방법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갈 때 올바른 역사상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탐라국의 정체성은 당연히 한국사로 귀결되어야 한다. 탐라는 엄연히 한국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탐라사는 한국 역사의 발전과정과 어느 정도 부합할 때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사가 세계사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탐라사도 한국사와의 조화를 기본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탐라국이 존재했던 고대사회는 그들의 활동무대가 한·중·일 동아시아세계였다. 특히, 탐라국은 동아시아 해양의 중심에 있었고, 탐라의

1950m 한라산은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이정표 역할을 했었다. 나아가 탐라는 남방문화와 북방문화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였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중해’¹¹⁾라는 공간 설정 속에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역사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은 바다의 영역도 분할되어 있지만 당시 바다는 민족이나 국가가 모두 함께 공유하는 공동자원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탐라국 역사로 제한해서 보면 관련 자료가 거의 없을 만큼 부족하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두고 보면 자료로서의 가치가 엿보이는 요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탐라국 사료와 자료를 해외 사례와 비교 연구해 나가는 비교역사학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서양에서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던 국가들이 어떻게 선사시대와 고대사회를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는 탐라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탐라국 연구는 지역사나 한국사의 관점을 뛰어넘어 고대 동아시아 해역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찾아 나갈 수 있는 핵심이며, 이는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의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3. 탐라국 정체성의 실체

1) 고고자료로 본 정체성

탐라국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탐라국을 이루어간 사람들의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창조신화의 원형이 남아 있는 탐라에서 인간의 창조는 가능하긴 했던 것일까? 주호인은 실제 존재했던 종족일까? 북방과 남방에서의 해로를 통한 빈번한 이주와 정착, 혼합과정에서 선주민은 누구이고 이주민은 누구인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종족들이 정착하다 사라지고, 그

11)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215~221, 459~491쪽; 권덕영, 「『동아시아지중해』론과 고대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 『지중해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011, 36~43쪽.

뒤 어떤 종족이 어떤 경로로 이주해 왔는지 밝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더라도 탐라국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¹²⁾

‘제주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고고학적 학문성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사시대라 부르는 시기는 역사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민족은 선사시대 이래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 툰드라지대에 정착했고,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 베링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인디언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갈래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했다. 그런데 한반도로 들어온 경로도 시기를 달리하며 대체로 3갈래로 이동해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는 가장 북쪽에서 시베리아 지역을 거쳐 순록 떼의 뒤를 따라 동진하다가 연해주지역에서 태평양을 만나자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경상도에 정착했다. 이들은 진한과 변한의 중심 종족이 되었고, 후에 신라를 형성했다. 둘째는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홍안령산맥과 송화강 유역에서 남진해 부여·예맥·숙신 등 종족사회를 형성하다가 백두산과 압록강 유역을 터전으로 한반도로 들어와 후에 고구려를 성립한 종족이다. 마지막 갈래는 중국 산둥반도에 터전을 잡고 생활하던, 중국 측에서 말하는 소위 동이족의 일부가 요하를 건너 요동반도를 거치거나 황해를 직접 건너 한반도 서해안 영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종족이다.¹³⁾ 이들은 후에 마한과 백제에 통합되어 갔다. 다시 말하자면, 3갈래로 한반도에 유입된 종족들이 상호 간에 서로 밀접한 사회적 또는 혈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의 민족이 된 것이다.

결국 한민족의 근간은 한·맥·예 3부족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12) 탐라전기 고고자료의 검토를 바탕으로 불평등사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물질문화와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박경민, 「탐라의 형성과 고고자료의 상관관계 연구」, 『호남고고학보』 58집, 2018, 67~75쪽.

13) 이상현, 『세계적 한국사 38강』, 도서출판 삼화, 2011, 40~42쪽.

맥족은 고구려·백제의 근간을 형성했고, 예족의 근간이 되는 국가는 부여·옥저·말갈·동예 등이다. 한족은 신라에 의해 삼한 통일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원민족은 고조선 국가를 정치의 공동으로 하고, 고조선어를 언어의 공동으로 하여, 의·식·주 생활문화와 신앙의 공동이 형성되었다. 한 무제의 침략으로 B.C. 2세기에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 고조선 직령지에 한4군 이 설치되자, 원민족은 직령지 주변으로 몰려나서 부여·마한·진한·변한·고구려·백제·신라·가라·탐라 등 열국을 건국하고, 고토수복과 통일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열국 가운데 고구려가 가장 강성하여 한사군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구토를 거의 모두 회복하였다. 백제는 선진적 문화예술 창조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통일은 신라와 고려에 의해 주도되었다.¹⁴⁾

탐라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탐라의 특정 계층은 위세품을 소유하고 작은 마을들을 점차 위계질서가 있는 큰 마을로 변화시키면서 초기 철기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탐라 왕국 형성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탐라 초기(기원전후~200년)는 탐라에 철기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철기시대다. 2천여 년 전인 기원전후에서 2세기대 이르는 시기로, 100~300여 호의 집터를 갖춘 거점취락이 삼양동·용담동·외도동·고내리·곽지리·종달리·화순리·예래동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거점취락은 3신인이 살았던 일도·이도·삼도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점취락은 대개 해안과 가깝거나 하천이 흐르는 평탄한 구릉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물을 얻거나 생업활동에 유리하고 해양교류를 통한 외부와의 물자교류가 용이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 시기 사람들은 둥근 형태의 구덩이를 파서 기둥을 올린 송국리형 집터에서 생활하였다. 한반도 지역에서 유입된 송국리형 집터는 한반도보다 탐라에서 오래 지속되었다.¹⁵⁾

탐라국 형성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종족은 고고 자료에 근거해 볼

14) 신용하, 「한국 “원민족” 형성과 “진근대민족” 형성」, 『사회와역사』 88, 한국사회사학회, 2010, 151쪽.

15) 김경주,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5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41~52쪽.

때 한민족이 한반도로 이동해 온 3갈래 부류의 일부가 다시 탐라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예맥족의 고구려 종족계통, 마한 계통, 진한·변한 계통의 선진적 문물을 가진 종족들의 일부가 시차를 두고 탐라로 이동해 저마다 거점취락을 이루어 탐라국 형성의 기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탐라 전기(201~660년)는 다수의 대규모 거점 취락이 제주 서남부권(화순리, 예례동)과 동북부권(삼양동, 종달리, 용담동)에 형성된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종달리유적에서는 경남 사천 늑도와 전남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 확인되는 늑도식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이는 탐라와 변한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 한식 토기가 한군현~한반도~제주~일본 열도~오키나와를 연결하는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듯 탐라 역시 이와 같은 교류에 합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⁶⁾

탐라 전기 출토 유물로 세형동검, 한경, 철경동축, 중국화폐[오수전, 왕망전], 옥기 등 한식문물이 확인되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교역에 탐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와의 직접적인 교역이나 한군현의 낙랑, 예맥 계통과의 교류로 가능했을 것이다.

3세기에 이르러 탐라의 정체세력 집단은 변·진한과의 대외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철 생산지인 변·진한을 탐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철기를 활용한 생산력 등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선진적 무기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주 용담동 철기부장묘[돌무지널 무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확인된 ‘궤수문 철제장검’ 등 철검은 3세기대 변·진한을 통해 유입했음을, 그리고 탐라 지역 수장층의 존재를 확인케 하는 것이다.¹⁷⁾ 바닷길을 통한 중국 한나라와의 직접적인 교역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배권력층 형성과 관련하여 지석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도 고인들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탁자식·바둑판식·개석식이 모두 존재하는데, 특히 한반도에서 기원전 300년경 이미 사라진 지상형 북방식이

16)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 58, 2018, 30~35쪽.

17) 김경주, 앞의 논문, 2018, 28~33쪽.

기원후 200년까지 제주에는 잔존하고 있다. 탐라전기 제주도 지상형 고인돌은 상석 아래 판석형 지석을 병풍처럼 괴고 지상에 위석형(圍石形) 돌방을 만든 형태로 축조되기에 이르는데 이 형태는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고인돌로, 이른바 ‘제주도식 고인돌’이라 한다. 제주도식 고인돌, 일명 ‘지상형 병풍식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모두 고대 탐라의 큰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 즉, 최소 100여 호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마을인 읍락에 해당된다. 제주도식 고인돌의 존재는 탐라 지배엘리트층, 곧 수장층의 등장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삼국이 정립되기 전에 수많은 고인돌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족장들이 중심이 된 부족사회가 난립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후 점차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 등 모두 78국이 한강 이남에 자리하고 있었음은 탐라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물론 제주에는 고인돌이 한반도처럼 집단적 규모로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용담동·외도동·광령리·가파도 등 10기 이상 분포하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이고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140여 기로 보고되고 있다.¹⁸⁾

탐라 정치집단이 탐라국으로 성립·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변·진한을 통한 철기 유입과 함께 영산강유역의 마한 정치세력과 교류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탐라에서 출토되는 3~5세기대 외래계 유물로 영산강유역의 범마한계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탐라시대 초기의 대표 토기인 외도동식토기와 동반 출토되는 것도 탐라가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의 마한세력과 긴밀한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5세기 이후 탐라국은 새로운 교역망인 마한~백제~소가야~왜를 연결하는 서남해안 교역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외도동유적과 종달리패총에서의 가야계 토기 출토는 이러한 교류의 결과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탐라의 교류는 탐라~전남 서남해안~전남 동부지역~경남 서부지역~왜와의 연결망 속에서 전개된 것이다.¹⁹⁾

18)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제주시, 2015.

19)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를 통해 본 탐라의 대외교섭과 교류」, 『섬나라 탐라: 잃어버린 천년을 깨

결국 고고학 관점에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제주에 살기는 했지만 탐라 정체성과의 관련성은 없다. 제주가 섬으로 형성된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동해온 신석기시대 사람들도 제주에 정착했지만, 그들에게서도 탐라국 건국기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탐라국 건국과 관련지어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문화집단이다. 탐라의 청동기문화가 한반도와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철기문화도 변한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마한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탐라국 성립 기반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에 탐라국도 한민족 형성과 동일한 한반도로 이동해온 3갈래 계통, 곧 예맥 등 고구려 계통, 마한 등 백제계통, 변한·진한 등 신라계통의 종족들이 탐라로 이동해와서 탐라 왕국의 중심세력으로 정착했다. 여기에 자의든 타의든 해상교통로를 통해 중국과 일본, 더 나아가 남방에서 표류해 오거나 이주해온 집단이 부분적으로 결합하면서 탐라국은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고고학적으로는 고려정부에 의해 탐라의 해상활동 위축으로 국제적 교역을 통한 문물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탐라에서 생산되는 토기도 소멸되어 고려기와, 고려도기, 고려청자 등이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등 탐라국은 고고유물로 한정해서 본다면, 고려 건국을 전후해 한반도문화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문헌자료로 본 정체성

한반도에서 고구려·백제·신라·가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시기에 제주에도 강력한 지배층이 등장했고, 결국 탐라국이 성립하기에 이른다.²⁰⁾ 백제는 476년(문주왕 2) 4월에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탐라국 사신에게 은술(恩率)을 하사했다는²¹⁾ 기록으로 볼 때, 최소한 5세기 후반에 탐라

우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23, 203~206쪽.

20) 탐라국 명칭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신용하, 「탐라국 명칭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107집, 일지사, 2002.

2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2년(476).

국의 존재는 확실하게 확인된다. 탐라국의 의미는 조선후기 실학자 한치윤과 한진서의 『해동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우리말로 ‘도(島)’를 ‘섬[剌]’이라 하고, ‘국(國)’을 ‘나라[羅羅]’라 하며 ‘탐·섬·담’ 이 세 음은 모두 섬과 비슷하다”고 하였다.²²⁾ 따라서 탐라국은 곧 ‘섬국가’ 또는 ‘섬나라’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탐라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담모라국[수서], 탐모라국[북사], 탐라[일본서기], 탐부라[창려선생집], 탐라도[입당구법순례기], 탐라[당회요], 담라[신당서], 탁라[삼국유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탐라국 별칭으로 탐모라와 탐라 계통으로 구분하고, 탐모라 계통으로는 담모라, 탐부라가 있고, 탐라 계통으로 담라, 탁라가 있다고 하였다.²³⁾ 탐라 초기에는 탐모라라 불려지다가 점차 탐라(국)로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아가 탐라 전기(200~660년) 중국 측 문헌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韓)』(3세기 말), 『후한서』(440년 경) 권85,동이열전, 한(韓)조에 등장하는 ‘주호 또는 주호국’은 ‘오랑캐 고을 혹은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중국 측에서 부른 것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²⁴⁾ 당시 중국은 화이사상에 근거하여 주변 종족들을 모두 오랑캐로 인식했었다. 동쪽 오랑캐를 동이(東夷), 서쪽 오랑캐를 서융(西戎), 남쪽 오랑캐를 남만(南蠻), 북쪽 오랑캐를 북적(北狄)이라 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주호(국)’의 경우도 특정 이름으로서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당시 탐라에 존재하고 있던 집단을 총칭해서 중국 측에서 불렀던 이름일 것이다. 이는 탐라국 건국과 연결해서 볼 때에 주호(국)를 탐라의 선주민으로서의 ‘주호인’ 혹은 탐라국 건국 이전에 제주에 존재했던 독립국가로서의 ‘주호국’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제주에 주호인이라는 종족이 있었거나 혹은 독립된 국가로 주호국이

22) 한치윤·한진서, 『海東繹史』 권16, 世紀16, 諸小國 耽羅, “海島國也 後魏書稱涉羅 隋書稱耽牟羅 唐書稱儋羅 又稱耽浮羅 毛羅 皆一也 東國方音 島謂之剌 國謂之羅羅 耽涉儋三音 並與剌相類 蓋云島國也.”

23) 장창은, 「고대 탐라 명칭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189권, 고려사학회, 2022, 325~330쪽.

24) 장창은,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 방향」,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91쪽.

존재했었다면 탐라국 건국신화나 서사무가 당본풀이에 어떤 형태로든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호에서 탐라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마리를 신화나 서사무가, 문헌상에서 아직까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고학에서는 탐라 전기를 3세기~508년, 탐라 후기를 508년~고려병합 이전 시기로 보는 일부의 견해가 있다.²⁵⁾ 이는 『일본서기』에 탐라와 백제의 통교가 508년에 처음 이루어졌다는 기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탐라와 백제가 교류했다는 사실이 삼국사기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서 탐라 전기와 후기의 구분은 백제 멸망인 660년을 기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탐라국의 대외관계는 백제의 멸망(660년)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그 이전은 백제와의 밀접한 교류가 중심을 이루면서 고구려·중국과도 교류했었다.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에는 신라와 중심적인 교류를 형성하면서 중국의 당, 일본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전개해 나갔다.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기록은 백제 문주왕 2년(476)으로 탐라국에서 백제에 특산물을 바치자, 백제왕이 탐라국 지배층에게 은술이라는 관직을 내려줬다는 것이다. 은술은 백제의 관직 중에 3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이었다. 은술 외에 탐라국의 지배층은 백제로부터 좌평의 관직을 하사받기도 했다. 백제에 대한 탐라국의 특산물 상납은 간혹 소홀히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백제 동성왕은 498년(동성왕 20)에 탐라국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동원해 무진주[지금의 광주]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탐라국이 백제에 급히 사신을 파견해서 특산물 상납이 일시 중단된 것을 사죄하고 계속 진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백제의 탐라국 정벌은 중단되었다. 5세기경은 한반도에서 백제·고구려·신라의 삼국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백제의 입장에서는 탐라국이 고구려 등 백제 이외의 다른 국가와 교역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제가 탐라국에

25) 김경주, 「고고학으로 본 탐라 - 2000년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섬·흙·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2009, 166~174쪽.

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탐라국 역시 백제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지켜나간 셈이다.

탐라국이 백제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기 이전에는 고구려와도 일정한 교역을 전개했었다. 탐라국에서 생산되는 가옥(珂玉)은 탐라국과 고구려의 경제적 교역을 입증하는 중요한 물품의 하나였다. 삼국 간의 전쟁으로 탐라국의 교류가 백제 중심으로 이행되자, 고구려와의 관계는 서서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위서』의 섭라(涉羅)를 신라로 해석하여 탐라와 고구려의 직접적인 교류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²⁶⁾ 한균현 낙랑과의 교류를 입증해 주는 고고자료 등으로 볼 때에 고구려 지역과의 문물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백제가 4세기 중·후반에 전남지역을 차지했다는 기존 통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백제가 실제 영산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지배한 시기는 5세기중반~6세기초반이라는 주장도 있다.²⁷⁾ 고고학계에서는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을 5세기후반~6세기중반으로 다소 늦게 보기도 한다.²⁸⁾ 이를 근거로 문주왕~동성왕대의 백제와 교류했던 탐라는 제주도가 아니라 침미다례를 계승한 강진·해남지역에 위치했던 세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²⁹⁾ 또한, 동성왕대의 탐라는 제주가 아니라 전남 남해안의 강진 일대로 파악하기도 한다.³⁰⁾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탐라가 백제와 처음 교역한 것은 『일본서기』 계제기 2년(508) 12월에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하였다’는³¹⁾ 내용에 기대어 508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508년 이전에 476년,

26) 노태돈, 「5세기 高句麗人의 天下觀」,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 1988; 김현숙,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韓國古代史研究』 26, 한국고대사학회, 2002; 주보돈, 「新羅國家 形成期 金氏族團의 성장배경」,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정재윤, 「집권 기반의 확립과 영토 확장」, 『熊津都邑期の 百濟』,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장창은,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 방향」,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27)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영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52~53쪽.

28) 임영진, 「3~5세기 영산강 유역권 마한 세력의 성장 배경과 한계」, 『백제와 영산강』, 학연문화사, 2012, 127~128쪽.

29)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제30집, 2006, 446~448쪽.

30) 장창은, 앞의 논문, 2018, 105쪽.

31) 『일본서기』 권17 繼體 2년 12월조, “南海中耽羅人 初通百濟國”.

498년 탐라국과 백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³²⁾ 508년이 처음 통교라 보기는 어렵다.³³⁾ 그리고 고고자료에 근거하여 탐라 초기에 탐라가 마한·변한·진한과 교역했음을 상기할 때,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은 자연스럽게 탐라와의 교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다만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 시기에 대한 이견은 추후 지켜봐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백제에 대한 탐라국의 믿음과 신뢰는 663년 8월 백제부흥군이 백강구 전투에서 나당연합군과 전투가 벌어질 때에 탐라국에서 백제부흥군을 도와 참전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⁴⁾

탐라국과 백제의 돈독한 관계는 660년 백제의 멸망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탐라국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던 백제가 멸망해 버리자, 탐라국은 백제를 대신해 줄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661년에는 중국의 당과 일본,³⁵⁾ 662년에는 신라에 사신을 급파하여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에 이른다.

탐라국과 신라의 교류는 662년(문무왕 2) 탐라국주 좌평 도동음율이 신라에 입조하면서 조공적 관계가 형성되었다.³⁶⁾ 반면에 신라는 탐라국의 국왕과 부왕(副王)의 성격을 갖는 최고 통치세력인 성주(星主)·왕자(王子) 제도를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신라에게도 탐라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상대였다. 645년 신라 선덕여왕이, 신라를 위협하는 주변국들이 침범하는 재앙을 막아달라는 의미에서 황룡사9층탑을 세웠는데, 탑의 제4층에는 탐라를 일컫는 ‘탁라’가 위치한다.³⁷⁾ 신라가 경계해야 할 아홉 나라 중 탐라국이 서열 제4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665년(문무왕 5)에 탐라가 신라·백제·왜의 사신과 함께 중국 당나라 고종이 거행하는 ‘태산 봉선(封禪)’

3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2년 4월;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0년 8월.

33) 김영관도 백제와 탐라의 통교 시기를 508년(계체천황 2)이 아니라, 476년(문주왕 2)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영관, 앞의 논문, 2023, 219쪽).

34) 『舊唐書』 권 84, 列傳 34, 劉仁軌.

35) 『唐會要』 권 100, 耽羅國; 『冊府元龜』 권 970, 外臣部 15, 朝貢; 『日本書紀』 권 26, 齊明天皇 7년 여름 5월 23일.

3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2년 2월.

37) 『삼국유사』 권3, 탐상4, 황룡사구층탑.

제천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³⁸⁾ 주변국들과 대등한 대우를 받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자주적인 독립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 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679년(문무왕 19)에 백제를 대신해 탐라국에 대한 우월권을 가지게 되었고, 탐라국은 신라에 특산물을 바치는 등 신라 중심의 대외 교류를 통해 독립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용담동 제사유적 등에서 통일신라 계통의 토기류가 많이 확인되는 것은 신라와의 교류가 그만큼 활발하였음을 말해 준다.³⁹⁾

이상에서 볼 때에 탐라국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교류와 밀접하게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낙랑 등 한군현, 고구려와의 교류다. 둘째,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 이를 계승한 선진적 문화를 지닌 백제와의 교류다. 이 선진적 문화는 한반도의 서해안을 통해 유입된 중국 선진문화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셋째, 변한과 진한, 가야, 그리고 신라와의 교류다. 넷째, 서로의 인구 이동에 의한 물적 교류다. 단순한 유물의 유입에 그치지 않고 빈번한 인구 이동을 통한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졌음을, 고고유물이 서로 동반 출토되고 있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갈등 상황에서 탐라국은 자국에 유리한 외교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당·일본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라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문화,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고고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탐라국은 역사적으로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한국 고대국가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주변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간 것이다.

결국 탐라는 삼한, 고구려·백제·신라, 가야 계통의 종족들이 시대를 달

3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5년(665); 『구당서』 권84, 열전30, 劉仁軌; 『신당서』 권108, 열전33, 劉仁軌.

39) 제주 출토 통일신라토기는 용담동 제사유적 외에 광지리·금성리·고내리·일도동·종달리·용천동굴 등 생활유적과 제사유적에서 확인되며 기종은 향아리, 병, 장군 등이 주를 이룬다(국립제주박물관, 『탐라 耽羅』, 2018, 182쪽).

리하며 이동해 와서 본래 고·양·부을나 정치집단으로 대표되는 거점취락 단위의 주민들과 통합하면서 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고구려·백제·신라와 해상문물 교류를 유지하면서 탐라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갔다. 그리고 백제 멸망을 계기로 주변 당나라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 교류관계를 형성하면서 선진적 문물 유입을 통해 탐라국을 국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 후 탐라국은 공식적으로는 통일신라와만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한민족에 상당부분 통합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역시 탐라국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조공적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영토적 공간뿐만 아니라 해역의 확장을 꾀하였다. 이는 신라의 본격적인 해상활동과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했던 장보고가 탐라·완도·산동반도를 근거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중국 한족 계통의 영과 지역이나 일본 구주지역,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지역 주민들도 자의든 타의든 해류를 따라 탐라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탐라국 주민으로 동화되어갔고, 탐라국 입장에서는 해양문화 영역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탐라국이 한민족 일원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해소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탐라국은 독립국을 유지하면서 고려의 번국으로 존재했고, 1105년(숙종 10)에 해체되었지만 그 후에도 부흥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원명교체기, 고려의 정치적 상황에서 탐라의 귀속문제가 고려와 원 사이에 자주 발생했었다. 원은 독립국으로서의 탐라국 위상을 가능한 보장하고자 한 반면에 고려는 고려 중심으로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1105년 탐라군 설치에서⁴⁰⁾ 1153년(의종 7)에 탐라현으로 개편, 1220년(고종 7) 이전 탐라군으로 복귀, 1220년(고종 7)~1229년(고종 16) 탐라에서 제주로 개칭, 1295년(충렬왕 21) 제주목 승격,⁴¹⁾ 1374년(공민왕 23) 최영의 목호토벌⁴²⁾

40) 『고려사』 원종 세가 12년 5월.

41) 『고려사』 충렬왕 21년 윤 4월.

이 단행되면서 탐라는 점차 고려지배권으로 흡수되어 갔다. 그러나 탐라국이 한민족 일원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은 1404년(태종 4) 탐라 성주를 도주관좌도지관, 왕자를 도주관우도지관으로 삼는 등 제주토관의 명칭을 개칭한 시기로⁴³⁾ 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3) 신화·서사무가 자료로 본 정체성

신화나 서사무가에서의 탐라국 정체성은 탐라의 건국이 무당의 입으로 전해져 왔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무당들은 모든 곳의 첫머리에 1만 8천여 신을 초청하는 초감제라는 절차를 행한다. 무당이 천지 자연의 탄생 과정을 신에게 알리고 나서 곳을 벌이는 날[시간]과 국[공간]을 신에게 고하는 일명 ‘날과국섬김’의 순서로 이어진다. 그 대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영평 팔년 을축(乙丑) 삼월 열사을날 즉시 생천 고의왕, 즉시 생천 양의왕, 인시 생천 부의왕 고량부(高良夫) 삼성(三姓)이 모은골로 솟아나 도읍(都邑) 흥던 국이웨다. (중략) 일네 일도(一徙), 이네 이도(二徙), 삼네는 삼도리(三徙里) 마을 갈라(후략)’⁴⁴⁾

이는 영평 8년 을축 3월 13일 자시에 고을나, 즉시에 양을나, 인시에 부을나 고양부 삼성이 모흥혈에서 솟아나 도읍한 나라라는 것이다. 이처럼 서사무가에서는 탐라국 건국을 영평 8년인 AD 65년으로 매우 구체화시켜 전해주고 있다. 또한 탐라국 건국 유래가 고·양·부 삼성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42) 『고려사』 세가 공민왕 23년 7월.

43)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4월 21일(신묘) “辛卯/改濟州土官號以東道千戶所爲東道靜海鎮, 西道千戶所爲西道靜海鎮, 都千戶爲都司守, 上千戶爲上司守, 副千戶爲副司守, 道之官爲都州官。以星主爲都州官左都知管, 王子爲都州官右都知管”.

4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4쪽.

이 같은 내용은 1794년(정조 18) 제주별시(濟州別試)의 책(策)에서 수석을 차지한 부종인(夫宗仁)의 답안지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정조는 삼성혈 등의 자취가 전해지는 이유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고, 이에 부종인은 삼신인이 모흥혈에서 종지용출한 때는 ‘한나라 명제 영평 8년인 65년의 일’이라 답하였다.⁴⁵⁾ 영평은 중국 후한 명제(58~75년)의 연호다. 서사무가에 근거한다면 탐라국의 건국은 중국 후한 영평 8년인 65년이다. 기원전후에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고구려(BC 37), 백제(BC 18), 신라(BC 57), 가야(AD 42년)가 건국되었고, 마지막으로 탐라국이 AD 65년에 건국한 셈이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는 화순리·삼양동 등의 마을형성과 계층사회로 나타나는 탐라 초기시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탐라건국신화에 나오는 고·양·부 3신인이 땅에서 솟아난 것이 영평 8년 65년 일이고, 이는 곧 탐라국 건국과 밀접한 관련을 시켜서 후대까지 계속 무당들에 의해 구송(口誦)으로 전해져 왔고, 이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도 통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탐라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과 마찬가지로 건국신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탐라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천강(天降), 난생(卵生) 건국신화와는 달리 ‘종지용출(從地湧出)’이라 하여 모흥혈에서 솟아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흥혈에서 태어난 고·양·부(혹은 양·고·부) 3신인이 바다 건너온 세 처녀 집단과 혼인해서 각기 살 곳을 정했고, 오곡종자와 송아지, 땅아지 등 새로운 선진문물을 수용함으로써 수렵채집에서 농경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탐라국 건국의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이러한 탐라 건국신화는 일정 기간 전승되다가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문선』 등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⁴⁶⁾

신화를 전해지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를 보더라도 곰에게 쫓과 마늘을 먹이고 햇빛을 못 보게 했다하여 여자가 될

45) 『탐라빈홍록』(1794, 정조 18), 「어제책문」, 유학 부종인 삼하 대책.

46) 『고려사』 권57, 지 권11, 지리2, 탐라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동문선』 권101, 전, 성주고씨가전.

수 없듯이, 사람이 땅속에서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 속에는 고대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나타난다. 모흥혈(지금의 삼성혈)이라는 땅속에서 태어난 세 사람은 제주의 토착집단을 의미하고, 바다 건너온 세 처녀는 이주집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토착집단은 수렵활동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돌함 속에 송아지와 망아지, 오곡 종자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주집단은 이미 목축과 정착농경생활을 했던 선진적 문화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신화는, 탐라국은 제주에 이미 살고 있던 토착집단과 선진적 문물을 가지고 제주에 들어온 이주집단이 결합해 건국한 국가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탐라 건국신화에는 이주집단이 벽랑국 혹은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용담동 철기문화 유적이나 유리구슬, 환옥 등은 오히려 한반도 지역과 연결된다. 그리고 건국신화에 나오는 을나(乙那)의 경우도 예맥족이 족장을 칭했던 명칭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⁷⁾ 이렇게 볼 때, 이주집단은 한반도 북부지역의 낙랑,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선진적 문물을 가지고 있던 이주집단은 예맥족의 일파라 할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한반도 지역의 마한과 변한 등 삼한과의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 삼한 지역의 주민들도 해양 교류를 통해 탐라로 이동해 왔다. 따라서 신화의 내용을 제주 출토 고고유물과 관련시켜 보면 예맥족이나 한족(韓族)의 부류가 탐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탐라 건국서사시는 제주 당본풀이의 송당본풀이를 원형으로 보고 있다.⁴⁸⁾ 3신인이 땅에서 태어나고 각기 고양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송당본풀이의 소로소천국도 땅에서 태어나며, 웃송당 · 셋송당 · 알송당 등 상중

47) 신용하, 「탐라국 기원의 명칭에 관한 한 연구」, 『한국학보』 107, 일지사, 2002.

48)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4;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1; 허남춘, 「탐라 건국신화」, 『탐라』 국립제주박물관, 2018, 14~19쪽; 허남춘, 「탐라국 건국신화의 주역과 고대서사시」, 『한국무속학』 39집, 한국무속학회, 2019; 강소전, 「탐라의 구비역사와 무가 전승」, 『섬나라 탐라: 잃어버린 천년을 깨우다』, 2023, 192~195쪽.

하로 계층화되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본풀이 여신이 제주에 표착하듯 세 처녀 집단이 바다 건너 제주에 표착하는 것도 유사하고, 송당본풀이의 남신이 사냥을 위주로 하고 여신[백주또]이 농경을 권하듯, 건국신화의 3신인 집단의 수렵채집과 세 처녀 집단의 오곡종자로 대표되는 농경문화 등의 모티브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⁴⁹⁾

그렇게 볼 때에 영평 8년 65년인 기원후 1세기에 고·양·부 3신인이 솟아났고, 탐라국이 건국된 것으로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원후 1세기는 탐라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진적인 문화집단이 외부에서 탐라로 유입되는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한반도로 이동해 온 한민족의 3갈래 종족이 선진적 문화를 소유하고 탐라로 이동해서 정착과 함께 탐라국 형성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탐라 초기시대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후 신화·서사무가는 탐라국 전시기를 통해 탐라국 입춘굿과 함께 탐라국의 국내민안을 지키는 정신문화의 중심적 토대를 형성했다. 탐라 중심의 서사무가 등 무교식 의례는 탐라에서 한라산신과 그 아들 광양왕신을 호국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 중엽까지 이어졌고, 결국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탐라 호국신당의 철폐와 한라산신을 국가의례로 전환하여 유교식 의례로 봉행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신화·서사무가에서의 탐라국 정체성은 탐라국이 해체된 이후에도 1702년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4. 탐라국의 변천과 동아시아 교류

1) 정치적 변천

탐라국 지배세력은 건국신화에서는 고·양·부 3신인으로 나타난다. 서

49) 허남준, 「탐라 건국신화」, 『탐라』, 국립제주박물관, 2018, 14~19쪽.

사무가에서는 3신인의 출현을 영평 8년, 즉 65년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 지배 세력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 문헌 『당회요』 「탐라국」조에 의하면, 탐라국은 8천 호에 크게 5부락체제를 갖춘 독립 국가로 발전하여 지배·관리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탐라국의 최고 지배자는 ‘탐라국왕’, ‘탐라국주’, ‘탐라왕’이라 칭하였다. 탐라국이 독립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외교의 최고 대표자로 ‘왕’이 존재했던 것이다. 탐라국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Kingdom)인 셈이다. 탐라국은 신라와 공식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는 성주·왕자·도내(徒內, 都上, 徒上) 신분층으로 권력이 더욱 서열화 되어갔다. 그중에서도 탐라국의 최고지배신분층은 성주와 왕자이다. 문헌기록에는 신라에서 하사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 성주는 탐라국 토어로 ‘불님’ 곧 국왕 또는 임금의 뜻이며, 왕자는 군장의 뜻을 가진 토어로 풀이하고 있다. 더 붙여 성주는 국왕이요, 왕자는 부왕적인 존재로서 탐라국은 이 양자가 다스리는 이원적인 집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¹⁾

해상에 존재했던 독립 왕국으로서의 탐라국은 주변국들과의 교류를 위해 별자리와 전문 항해술이 매우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별에 대한 숭배 의식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성주는 곧 ‘별의 주인(별나라의 국주)’이며, 산천신앙과 관련하여 한라산신을 하늘신 곧 천왕으로 동일시하여 인식했다. 왕자는 한라산신(천왕)의 아들 혹은 아우인 ‘광양왕’으로 인식해 제사장과 현실정치의 지배자 등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⁵²⁾

탐라국은 백제의 멸망으로 백제에서 신라로 이동했던 것처럼, 고려가 건국되자 다시 현실적 정치상황에서 신라에서 고려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결국 고려에 특산물을 바치면서 조공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고려는 탐라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중국의 송나라나 여진족·일본 등에서

50) 『당회요』 권100, 탐라국.

51) 문경현, 「탐라국 성주·왕자고」, 『용암화갑기념사학논총』, 1989.

52) 박찬식, 「탐라 복권의식의 변천」, 『섬나라 탐라: 잃어버린 천년을 깨우다』, 2023, 218~221쪽; 강문규, 『탐라왕국』, 한그루, 2018, 참조.

왕래하는 사신들과 똑같이 대우했다. 탐라국 사신들은 고려의 연중행사인 팔관회나 연등회에도 참가했고, 물물교역도 이루어졌다. 당시 탐라국에서 진상했던 물품으로는 말·선박·꿀·우황·쇠가죽·나육·해조·진주·비자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고려는 어떤 방법으로 바다 건너 존재하고 있던 탐라국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 주면서 상호 신뢰 속에 탐라와 관계를 유지해 나갔을까. 당시 탐라국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고려는 탐라를 번국(藩國)으로 인식하면서 회유와 포섭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지배권을 강화했다.⁵³⁾

첫째, 성주·왕자제도의 인정을 통한 독립성 보장이었다.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탐라국도 고려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 탐라와 고려와의 관계는 후삼국시대인 925년(태조 8) 탐라가 고려에 특산품을 바치면서 비롯되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2년 후인 938년(태조 21)에는 탐라국에서 태자 말노(太子末老)를 고려에 파견하여 공식적으로 입조하였다. 탐라국은 통일신라의 멸망으로 고려와 공식적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에 고려에서는 탐라국의 국가적 칭호를 인정함과 동시에 탐라국의 최고 지배신분층, 곧 국왕과 부왕을 의미하는 성주와 왕자 제도를 그대로 인준해 준 것이다.⁵⁴⁾ 이는 탐라국이 후삼국 통일 이전부터 고려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고려는 탐라국의 칭호를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고, 또한 지방관을 직접 탐라국에 파견해 지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감안된 것이다.

탐라 지배층은 제주지역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신장하여 자율성을 확대하

53) 이에 대해 노명호는 기미주 단계, 내지화 및 군현화 단계, 내지 군현 전환 단계로 이해하였다. 즉, 구당사가 파견되는 1011년(현종 2)에서 탐라국이 탐라국으로 개편되는 1105년(숙종 10)까지를 기미주 단계, 1105년(숙종 10)에서 현령관이 파견되는 의종 대를 내지화 및 군현화 단계, 의종 대 이후는 내지 군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 연구』 28, 2005, 188~205쪽). 한편 김보광은 고려의 탐라 지배방식은 외국에서 藩土, 숙종대 이후는 군현으로 편입되어 지방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김보광,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2018).

54) 성주·왕자의 실체와 탐라의 통치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김창현, 「탐라왕 및 성주·왕자의 실체와 탐라의 통치체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93~120쪽.

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1011년(현종 2) 탐라는 고려의 주군(州郡)과 같이 주기(朱記)를 요청하자 중앙정부가 이를 허락했다.⁵⁵⁾ 이는 탐라 지배층이 스스로 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고려 중앙정부의 예측보다는 제주지역에서의 통치권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 성주·왕자 지배층의 의지였다.⁵⁶⁾ 고려 후기 성주·왕자 계층은 고려 전기에 비하여 다소 약했다 할지라도 원과 고려정부는 여전히 제주지역을 지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성주·왕자의 제주지역 자율적 통치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단계를 거치고나서 성주·왕자 계층은 고려의 지방세력인 호장층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갔다.⁵⁷⁾

둘째, 고려는 탐라국 지배층에게 무산계 수여를 통해 그들을 회유하고 포섭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무산계는 무관의 품계를 정한 것으로 탐라국의 왕족을 비롯하여 여진주장, 향리 등에게 수여했는데, 지방과 변방세력을 회유하거나 중앙관료와 지방의 지배층을 위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탐라국 왕족들에게는 이분화해서 수여되었다. 곧 국왕과 부왕인 성주·왕자에게는 운휘대장군·명위장군·유격장군 등 높은 등급의 무산계를, 성주·왕자의 아들이나 동생 등 가족에게는 배용교위·배용부위 등 낮은 등급의 무산계를 수여했다.⁵⁸⁾ 고려정부가 이렇게 탐라국 지배층에게 무산계를 수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려에서 탐라국 지배층에게 관직을 줌으로써 그들을 고려의 우군으로 삼을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탐라국을 지배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탐라국의 지배층은 강대국인 고려정부로부터 관직을 받았다는 것이 큰 영광이었고, 이는 탐라국에서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셋째, 고려는 탐라에 구당사를 파견해 부분적이거나 탐라국을 관리하고

55) 『고려사』 권4, 현종 2년 9월, “乙酉 耽羅乞依州郡例 賜朱記 許之”.

56) 노명호, 앞의 논문, 185~190쪽.

57) 박종기, 「고려시기 제주지역 이해의 방향」, 『탐라문화』 71호, 2022, 24쪽.

58) 고창석, 『濟州歷史研究』, 도서출판 세림, 2007; 김창현,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1998, 322~335쪽; 김보광, 「고려 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 방식과 인식의 변화」, 『변경과 경계의 동아시아사』, 혜안, 2018, 115~118쪽.

자 했다. 탐라국의 지배세력을 단순히 포섭·회유하는 것만으로는 탐라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형태일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실 정치의 상황 변화에 따라 탐라국의 지배세력은 고려에 대한 신뢰가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고려는 탐라국의 지배세력을 통해 탐라민의 지배와 함께 탐라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구당사의 파견은 바로 고려의 탐라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민정시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탐라국 사신이 고려 팔관회 참석 및 특산물 진상 등을 위해 바다를 건너야 할 경우에 대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항해 업무 외에 탐라국의 지배층 동향이나 탐라민에 대한 민정시찰, 탐라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 중앙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정착되어갔다. 예를 들어 1090년(선종 7) 탐라 구당사가 성주의 사망을 고려 조정에 알리고, 그의 동생이 성주직 세습을 승인받도록 한 것이다.⁵⁹⁾ 이는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탐라국에 대한 고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간접적 지배형태의 하나였다.

한편, 탐라국은 제천의식을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였다. 광양당이 탐라도성 밖에 위치한 신전이었다면 칠성단은 탐라도성 안에 만들어진 신전이였다.⁶⁰⁾ 칠성단은 칠성도 또는 칠성대라고도 불렀는데, 탐라국시대 모흥혈의 북쪽인 지금의 제주성 안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개의 대를 쌓아서 만든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조에 의하면 ‘주성 안에 둘로 쌓은 옛터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와서 삼도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칠성 모양을 본떠 대를 쌓아 나누어 살았다. 그 때문에 칠성도라 부른다’라 하였다.⁶¹⁾ 탐라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고·양·부 3신인이 모흥혈에서 솟아나 저마다 일도, 이도, 삼도에 거주했는데, 이때 북두칠성 모양을 모방한 대를 쌓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칠성단은 당초 삼도(일도·이도·삼도)의 경계 표시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59) 박종기, 앞의 논문, 14쪽.

6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강문규, 『(일곱 개의 별과 달을 품은) 탐라 왕국』, 한그루, 2017.

6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8, 전라도, 제주목.

칠성단은 돌로 둥그런 형태의 기단을 두른 뒤 그 위에 흙을 쌓아 인위적으로 조성한 제단이다. 그렇다면 칠성단은 세 부족과 탐라국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장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단계에서 권력의 최고 지배층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대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칠성단의 위치는 칠성동 3곳, 향교동 1곳, 위아 앞 1곳, 향청 뒤 1곳, 두목동 1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²⁾

2) 탐라국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에 위치했던 탐라국이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한 외부 지역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강력한 고대국가들이 형성되면서 그들 국가와의 교류는 탐라국의 안정과 국가적 위상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탐라국 주변 국가 간 관계가 서로 악화되거나 갈등으로 교류가 단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기에 항해의 안전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항로 개척도 요구되었다.

탐라국의 해양항로⁶³⁾는 먼저 탐라국과 한반도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항로다. 이 항로는 선사시대, 청동기, 철기시대에도 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제주인들의 도회소가 영암·해남·강진이었음을 추정해 볼 때 탐라국시대에도 이곳을 연결하는 해양교통로가 발달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고유물로 볼 때 늑도토기가 제주 종달리패총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늑도 지역과의 해상 교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탐라국은 한반도와 중국 간에 형성된 고대항로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참여했다. 해양 항로는 일반적으로 황해를 중심으로 한 ‘환황해연근해항로’, ‘황해중부횡단항로’, ‘황해남부사단항로’이며,

(62) 홍기표, 「탐라 유적의 종합 고증」,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243~263쪽.

(63) 최희준, 「탐라국의 대외교섭과 항로」, 『탐라문화』 5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탐라국도 이 항로를 통해 한반도, 중국 등과 교류했다.⁶⁴⁾

마지막으로 한·일간의 항로는 ‘한반도 동남지역~규슈북부’, ‘한반도 남서지역~규슈서북부’, ‘한반도 동남지역~훈슈서북부’, ‘한반도 동북지역~훈슈중부’, ‘한반도 동해북부~훈슈북부’, ‘연해주~홋카이도’ 항로가 있었다.⁶⁵⁾ 그중에서 탐라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서지역~규슈서북부’를 연결하는 교역로를 주로 이용했다. 그리고 8세기부터는 ‘제주도~규슈서북부’ 간의 직항로가 개척되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탐라국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형성된 고대 항로를 활용했다. 특히, 제주가 섬으로 형성되면서 외부세계와 물자 및 문화교류를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용한 항로는 ‘환황해연근해항로’였다. 이는 산동반도 등주에서 황해 북부를 따라 요동반도~서한만을 거쳐 한반도 서해안인 당항성, 영암~청해진~울산항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항로다. 탐라국은 이 항로를 통해 중국 한나라, 한사군 낙랑, 마한, 변·진한과 교역했다. 그 후의 고구려·백제·신라와의 교류도 모두 이 항로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한·일간의 고대 항로인 ‘한반도 동남지역~쓰시마~이키섬~규슈북부’로 이어지는 교역로는 신석기부터 이용된 항로로 문헌상으로는 1세기부터 나타난다. ‘한반도 남서지역~규슈서북부’ 연결 항로는 8세기부터 이용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탐라국은 닫힌 공간, 폐쇄적인 세계가 아니라, 동북아 해상네트워크를 통한 열린 공간, 개방적인 세계였고, 그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660년 탐라가 의지하고 따르던 백제의 멸망은 중국과 일본 등과의 국제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국 간의 전쟁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신라와의 관계 못지않게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탐라의 실익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일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탐라의 중국 교류는 탐라국이 661년 8월에 탐라의 국왕 유리도라(儒李都

64) 윤재운, 「한국 고대 해상 교통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해양문화재』 14호, 2021, 9~19쪽.

65) 윤재운, 앞의 논문, 20~28쪽.

羅)가 당나라에 사신과견으로 입조해 조공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중국과의 비공식적인 교류는 고고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나라와의 교류는 한나라 때의 것으로 보이는 동경과 동검, 왕망시대의 화천과 대천오십, 후한시대의 오수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류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당나라 한유(韓愈)의 문집인 『한창려집(韓昌黎集)』에 ‘탐라 등 외국 상선이 중국 광주에 폭주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도 탐라와 당의 해양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 지금 남아 있는 지명인 ‘당포(唐浦)’는 당과의 해양교류를 입증해주는 포구로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산지항에서 출토된 오수전 등의 중국화폐나 중국의 수나라(581~618년) 역사서 『수서』에 ‘전선(戰船) 1척이 탐모라국(탐라국)에 표류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볼 때에 비공식적이지만 매우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탐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661년 탐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이래 탐라는 일본에 10회, 일본은 탐라에 1회 사신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해양교류가 이루어졌다.⁶⁶⁾ 탐라는 661년 왕자 아파기(阿波伎) 등 9인을 일본으로 파견해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배경은 659년 일본이 파견한 견당사(遣唐使)가 661년 월주를 출발해 귀국하다가 탐라에 표류하자 이들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호송하면서 단행된 것이다. 그 후 일본과의 교역은 650~75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양국 간의 교류로 탐라에서 생산되는 전복인 탐라복(耽羅鰓)과 사슴이나 노루의 말린 고기를 의미 하는 탐라방포(耽羅方脯)가 일본으로 전래되었고, 일본에서는 비단 등의 직물류나 도끼 · 자귀 · 손칼 등의 철기류가 주로 탐라국으로 유입되었다.⁶⁷⁾

제주섬은 한반도를 비롯해서, 중국 및 일본의 동아시아 해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곧 탐라국의 위치는 한반도, 중국, 일본열도로 이루어진 해상 네트워크의 접점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라국은 국가 간 교류를 통해

66) 장창은, 「문헌으로 본 고대 탐라국」, 『탐라 耽羅』, 국립제주박물관, 2018, 227쪽.

67)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51~58쪽.

주변 국가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적인 국가적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탐라국은 동아시아사에서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째, 영토의 대소를 떠나 탐라국은 지리적으로 한·중·일 해양교역망의 중심지이며,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중계지로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탐라국은 고대 동아시아 해양네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탐라국은 해상왕국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해양의 허브에 위치함으로써 한·중·일 바닷길은 물론 동중국해로까지 바닷길이 확장될 수 있는 해상 교통망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둘째, 한·중·일 해양의 허브에 위치하고 있는 탐라를 중심으로 바다를 함께 공유했던 지역들이 서로 협력하여 동아시아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한다. 나아가 베트남 영역까지 포함해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이라는 동질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서 탈피해 지리적 유사성과 상호 의존성, 문화적 일체감으로 얹혀있는 지역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적 가치를 찾고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고대 동아시아 해역세계에 존재했던 공존과 공영, 평화와 호혜, 개방과 포용, 다양성과 복합성이 인정되는 역사적 유산을 정치적 이념을 떠나 어떻게 계승·발전해 나갈 것인지 서로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길이 고대 동아시아 역사 유산이 주는 교훈이다.

넷째, 현재 동아시아는 고대 동아시아해역 세계와 달리 한편으로는 역사적 앙금을 극복하지 못한 갈등과 분쟁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고대 동아시아 지역 간의 문화적인 공통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상과 현상을 포용하고 서로의 문화들이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탐라국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해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이동과 연계하여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탐라문화의 기원과 형성’에 대

한 종합적인 연구 등을 진행한다면 동아시아 속에서 탐라국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5. 맺음말

탐라국이 남긴 역사적 유산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일찍이 제주의 역사적 특징으로 개척정신과 공존공영의 공동체의식을 거론한 바가 있다. 해양중심의 개척정신, 우주 중심의 창조적 세계관, 공존·공영의 공동체의식은 탐라국의 근간을 지키는 정신세계였다. 먼저, 탐라의 개척정신은 제주의 지리적 혹은 자연적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탐라인들은 일반적인 섬이 지니는 고립성과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는 점에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탐라인들에게 바다는 문화의 단절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매개고리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탐라국시대 주변 외국과의 활발한 교역 역시 탐라민의 개척적인 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탐라의 설화나 전설, 신화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우주중심적 세계관은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이는 탐라 그 자체를 우주의 중심, 창조의 세계로 인식한 것으로 제주문화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제주를 고립된 변방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은 고려말 이후 해금정책과 공도정책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인식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탐라국의 유산으로 계승해야 할 요소는 공존·공영의 공동체의식이다. 주변국과 함께 공유해 온 탐라해역과 동아시아 바다는 열린 세계였고, 소통의 길이며 광장이었다. 영토의 크기나 세력의 강약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균형의 대동세계를 실현하려는 공동체의 힘이었다. 공동체 의식은 전근대의 한국 농업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요소지만, 제주의 경우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이러한 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탐라국이 소멸된 이후, 중앙집권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

결이라는 양상으로 더욱 강화되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탐라부흥운동과 복원의식은 탐라 중심의 내재적 대동세계를 실현하려는 열망이었을지도 모른다. 탐라인의 공동체 의식 강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삶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던 삶의 지혜이자 방식이었다. 경작하는 사유지가 협소했기 때문에 사적 지주제의 발달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산촌은 반농반목, 해촌은 반농반어의 이중적인 생계수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목축과 어업은 맹아적 공산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이라는 공동체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제주인의 공동체성은 일차적으로 혈연보다는 마을을 중심으로 집결되었다. 제주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혈연적 유대보다도 마을 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앙에 대비한 다양한 계의 조직, 마을제나 공동오락, 당 신앙 같은 무속신앙을 통한 공동체성의 강화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제주도민들은 외부의 권력이나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공동체성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체성을 마을 단위에서 제주도 전역으로 신속히 확산시켜나갔다. 일제강점기 제주지역에 아나키즘적 성향의 정서가 농후했던 것도 이러한 공동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주인의 정신을 망망대해의 동아시아해를 누볐던 해민에서 찾고, 바다사람들의 개척정신, 척박한 화산회토의 농경생활에서 길러진 자립정신, 개인의 존엄성과 집단의 공동체의식을 조화한 개체적 대동정신을 해민정신(海民精神)으로 개념화했다. 나아가 자립정신, 해민정신, 개체적 대동주의는 셋이면서 하나가 되어 제주정신(Chejuism)을 형성한다고 했다.⁶⁸⁾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다.

탐라는 동아시아지중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지중해는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남긴 역사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의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홋카이도 북방

68)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개정증보판), 파피루스, 1998, 595~645쪽.

의 4개 섬,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 (다오위다오)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250여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남해제도(南海諸島)와 그 일대 해양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중국·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남쪽에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도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탐라 천년의 가치와 역사 유산이 주는 최대의 교훈은 공존·공영의 공동체의식이 아닐까 싶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화합의 대동세상을 이루며,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탐라국 역사가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太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海東繹史』, 『隋書』, 『魏書』, 『新唐書』, 『日本書紀』, 『續日本後紀』, 『耽羅紀年』(김석익)

2. 단행본

강문규, 『탐라왕국』, 한그루, 2018.
강봉룡,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고대사』, 경인문화사, 2016.
고창석,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_____, 『탐라국사료집』, 신아문화사, 1995.
권오영,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창출판사, 2019.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김창현, 『주제로 본 탐라국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23.
신용하, 『한국 원민족 형성과 역사적 전통』, 나남, 2005.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5.
_____,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전경수, 『탐라 · 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제주발전연구원, 『탐라사의 재해석』, 도서출판 각, 2013.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보고서, 2008.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3. 논문

강은영, 「7세기 후반 일본의 耽羅使 파견 의의와 對中交通路의 변화」, 『新羅史學報』 44, 신라사학회, 2018.
강창화, 「고대 탐라의 대외 물자교류」, 『제주학과의 만남』, 제주학연구자모임, 2010.
고재원, 「김녕케내기동굴유적의 성격에 대한 시론」, 『제주문화재연구』 2, 제주문화예술회관 문화재연구소, 2004.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湖南考古學報』 58, 호남고고학회, 2018.
_____, 「탐라전기 취락구조와 사회상」,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_____,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青銅器學報』 6號, 韓國青銅器學會, 2010.
김락기, 「『魏書』소재 ‘涉羅’에 대한 小考」, 『고구려사의 새로운 접근』, 고구려발해학회, 2014.
김영관, 「百濟 滅亡後 扶餘隆의 行蹟과 活動에 대한 再考察」, 『百濟學報』 7, 백제학회, 2012.
_____, 「백제와 탐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고대사탐구』 4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3.
_____, 「百濟復興運動의 失敗 原因」,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2003.
김영심, 「문헌자료로 본 忱彌多禮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2013.
김창현,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1998.

- 노태돈, 「5세기 高句麗人의 天下觀」,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 1988.
-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耽羅文化』 5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8.
- 박재현, 「토기로 본 제주지역 탐라후기의 대외관계」, 『호남고고학보』 69, 2021.
- 서현주, 「고대 제주와 마한 소국의 교류양상」, 『한국상고사학보』 104, 한국상고사학회, 2019.
- 소진철, 「隋書의 百濟 附庸國 · 耽牟羅國은 어디? - 그것은 濟州島가 아닌 臺灣」, 『博物館紀要』 14,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9.
- 신용하, 「탐라국 기원의 명칭에 관한 한 연구」, 『한국학보』 107, 일지사, 2002.
- 신용하, 「한국 “원민족” 형성과 “전근대민족” 형성」, 『사회와역사』 88, 한국사회사학회, 2010.
- 윤명철, 2002, 「濟州道の 해양교류와 대외항로」, 『東國史學』 37, 동국사학회
-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부산사학회, 2006.
- _____,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百濟研究』 27집,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7.
- 李道學, 「漢城 陷落 以後 高句麗와 百濟의 關係 - 耽羅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논총』 3호,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5.
- 李丙燾, 「三韓時代研究-附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이승호, 「5~8세기 탐라국의 대외교류와 진상 · 조공 품목」, 『동국사학』 70, 동국사학회, 2021.
- 장창은, 「고대 탐라 명칭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89, 고려사학회, 2022.
- _____,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 방향」,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 _____,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9.
- _____, 「『삼국사기』 백제본기 탐라의 실체 검토」, 『신라사학보』 57, 신라사학회, 2023.
- 전경수, 「탐라국 형성의 주인공들과 그 문화에 대하여」, 「탐라국의 여명을 찾아서」,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2001.
- 정운용, 「삼국시대 탐라 관련 사료」, 『신라사학보』 49, 신라사학회, 2020.
- 최희준, 「탐라국의 대외교섭과 항로」, 『耽羅文化』 5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 허남춘, 「탐라국 건국신화의 주역과 고대서사시」, 『한국무속학』 39집, 한국무속학회, 2019.
- 홍기표, 「탐라 칠성도 관련 기록과 축조 시기」, 『사림』(42), 수선사학회, 2012.

4. 발굴보고서 · 도록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섬나라 탐라: 잃어버린 천년을 깨우다』, 2023.
- 국립제주박물관, 『탐라 耽羅』, 2018.
- _____, 『제주 용천동굴유적』, 2018.
-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용담동유적』, 2013.
- 제주대학교박물관, 『龍潭洞 古墳』, 1997.
- _____, 『濟州 三陽洞龍遺蹟』, 2001 · 2002.
- _____, 『濟州郭支貝塚』, 1997.
- _____, 『濟州島 遺跡』, 1986.
- 제주문화예술회관, 『濟州 和順里遺蹟』, 2009.
- _____, 『濟州市 外都洞遺蹟』, 2005.

Exploring the development and direction of understanding of Tamna Kingdom history

Kim, Dong-jeun*

According to myths and epics, Tamna was founded in the 8th year of Yeongpyeong (65), and according to archaeological data, it was formed in the 2nd to 3rd century, and according to literature, it was formed in the 5th century at the latest. Tamna was dissolved in 1105 (10th year of King Sukjong) and Tamna-gun was established. The period of Tamna is divided into the early Tamna period (0~200), the early Tamna period (201~660), the late Tamna period (661~900), the late Tamna period (901~1105), and the Tamna reorganization period (1106~1404).

First, the identity as seen in archaeological data is similar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eople, with three groups of tribes moving to the Korean Peninsula and settling down as the central power of the Tamna Kingdom. Around the time of the founding of Goryeo, pottery produced in Tamna disappeared, and Goryeo tiles, pottery, and celadon were widely distributed, becoming incorporated into the cul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identity of Tamna as seen in literature maintained its status as a Tamna state while maintaining maritime cultural exchanges with Goguryeo, Baekje, and Silla. In addition, through exchanges with China and Japan, Tamna developed internationally by introducing advanced civilizations. After that, following exchanges with Unified Silla, it still maintained its status as an independent state and formed relations with Goryeo. Tamna was disbanded in 1105 (10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with the establishment of Tamna Commandery,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but the conflict continued as Yuan tried to guarantee the status of Tamna as an independent state as much as possible, while Goryeo wanted to strengthen its control over Tamna centered on Goryeo. Tamna was completely integrated as a part of the Korean people in 1404 (4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

Third, the identity of Tamna as seen in myths and shamanic materials is that Tamna was founded in 65 AD (Yeongpyeong 8), and after that, myths and epic shamanic songs formed the central foundation of the spiritual culture that protected the nation and people of Tamna along with the Tamna Ipchun Gut throughout the Tamna period. The epic shamanic songs and other shamanic rituals centered on Tamna were performed in Tamna by worshipping the Hallasan God and his son, Gwangyangwang God, as national guardian deities. This tradition came to an end in 1702 when Pastor Lee Hyeong-sang abolished the Tamna guardian deity shrine and converted Hallasan God into a national ritual, performing it as a Confucian ritual.

Finally, the highest ruler of Tamna was called the King of Tamna, the Lord of Tamna, and the King of Tamna. The King was the Lord of Seongju and the Prince was the father-king, so Tamna was ruled by a dualistic junta. The Chilseongdan was built in the capital city of Tamna and a ritual was performed to offer sacrifices to heaven. Goryeo maintained relations with Tamna through methods of appeasement and inclusion, such as sending Prince Seongju, Musan-gye Suyeo, and the Old Tang envoy. The historical legacy of Tamna is a creative worldview centered on the universe, a sense of community based on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nd a pioneering spirit centered on the ocean.

Key words : Tamna country, Identity, Seongju(성주), Wangja(왕자), Chilseongdo(칠성도), Musangye(무산계), Gudangseo(구당사), Kogulyeo(고구려), Baegje(백제), Sinla(신라), Korea, Japan, China